

보도일시	2026. 09. 23 배포 즉시	위원장	이수진
담 당	전국여성위원회	문 의	02-2630-7082,7085~7 womenminjoo@gmail.com

함께 일하고 같이 쉬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추석 보내세요

풍요로운 한가위의 따뜻함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음식 준비와 손님맞이,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따로 없어야 진짜 행복한 추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가사·돌봄의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명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성평등 명절은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시해 온 생활 속 평등 과제입니다. 명절과 제사에서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 부담과 성차별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과 공약을 통해 일상 속 성평등 실현, 차별·혐오 해소, 세대와 성별을 넘어선 공감대 형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과 가족이 주고받는 말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음식 준비와 뒷정리, 명절 일정도 서로의 사정을 존중하며 함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출산을 재촉하거나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는 말도 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한 명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의 형태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절 뿐아니라 생활 속 성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사 돌봄의 부담을 덜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쉴 수 있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6.09.23.(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